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청년 실업자나 노숙자를 ‘도시의 숨겨진 명소 가이드’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	파리
문화·관광	4	파리 교외의 매력을 알리는 웹사이트를 민간합동으로 구축	파리
사회·복지	6	보육시설 등을 갖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 육아 응원 아파트’ 인증제도 시행	요코하마
	9	미취학 장애아동의 교육 및 발달을 위한 새로운 지원프로그램 도입	뉴사우스웨일즈
환경·안전	11	중국 시안(西安)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교토
	13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도심의 포트홀(pothole)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운동 전개	맨체스터
도시교통	15	어떤 교통수단이 통근자에게 가장 큰 행복감을 줄까?	몬트리올
	16	좋은 대중교통시스템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	미국
도시계획·주택	20	‘안전하고 깨끗하며 활력 있는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암스테르담
	22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새로운 도심형 에너지효율 아파트 건설 추진	프랑크푸르트
	24	‘이웃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둔 임대주택 사업 추진	뮌헨



청년 실업자나 노숙자를 ‘도시의 숨겨진 명소 가이드’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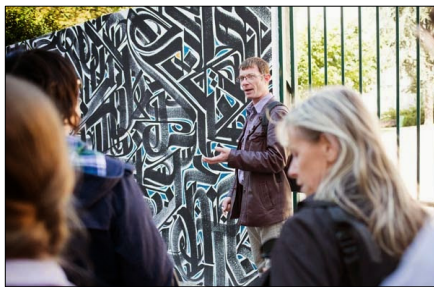
파리市 / 산업·경제

- 프랑스 파리에서는 셀마 사르둡(Selma Sardouk)이 창립한 ‘도시적 대안’이라는 네트워크가 장기 실업으로 인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사람들에게 문화·관광 분야 활동으로 다시 사회재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객이 자주 찾는 파리 20區的 강베타 광장에서 지난 2월부터 청년 뱅상(Vincent)이 진행하고 있는 독창적인 도시산책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거의 모르는 수도 파리의 숨겨진 명소인 파리 20區를 소개하는 산책프로그램으로, 파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을 다각도로 소개함. ‘도시적 대안’의 창립자 셀마 사르둡은 파리에 대안적 여행 프로그램이 없고,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문화관광 산책이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산책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함.
- ‘도시적 대안’ 네트워크 사이트(<http://alternative-urbaine.net>)에 등록된 파리 토박이, 지방에서 올라온 여행객, 외국인 관광객 등 15~16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2시간짜리 산책에 참여해 유명 관광지의 바깥, 파리의 진짜 모습을 만날 기회를 가짐. 모든 방문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영문 가이드북이 있어 프랑스어를 모르는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음.



4년간의 실업자 생활 끝에 노숙자까지 되었다가 대안적 동네산책 안내 활동을 통해 다시 세상에 발을 내딛은 청년 뱅상

-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뱅상은 전문 관광가이드가 아님. 파리 13區的 재취업센터(노숙자쉼터)에 살면서 기본사회급여(극빈자 연대소득)를 받던 장기 실업자였음. 그는 4년간의 실업자 생활 끝에 고용센터의 주 10시간 일자리 공모에 지원하여 이 일 자리를 얻고 매일 2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있음.
- 뱅상은 지난 2월 이후 이 산책프로그램으로 600여 명의 방문객을 안내했으며, 현재는 다른 두 사람도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산책경로는 뱅상이 스스로 20區의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여 제안한 것으로, 혼자서 관광객을 안내하고 방문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자신감을 되찾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 이 산책프로그램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옛 수도교, 혁명의 기억, 건축사와 거리미술했이 어우러진 파리 20區라는 ‘동네’ 그 자체임.
- 뱅상은 1860년에 파리 가장자리에 붙은 메닐몽탕, 벨빌, 샤론의 3개 마을이 합쳐져 파리 20區가 만들어진 유래를 소개하고, 1871년 5월 28일 파리코뮌의 마지막 전투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벨빌 공원 근방에서 벌어졌고, 파리코뮌의 마지막 저항선으로 ‘피의 주간’이 전개된 곳도 바로 파리 20區라는 사실을 설명함.
- 산책을 하면서 가이드와 방문객 사이에서는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짐. 예를 들어 메닐몽탕가(街)에서 市의 의뢰를 받아 Art Azoï 그룹이 제작한 거대한 벽화를 발견하자 방문객들이 이곳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고 묻자(이 구역은 거리미술했이 엄격하게 제한된 곳 중에 한 곳임) 허가받은 주체가 허가된 장소에 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려줌.



“허가받은 장소에 허가받은 사람이 그래피티를 그리는 것은 괜찮아요.” 뱅상의 설명

- 르트레트가(街) 40번지에서는 ‘하얀 남자’를 마주치게 되는데, 해골 모양의 흰 선으로 그려진 이 작품은 프랑스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한 도시미술가 제롬 메스나제의 작품임. ‘하얀 남자’는 뉴욕, 보스턴, 시카고뿐 아니라 브라질이나 멕시코에도 그려진 연작 그림임.



도시미술가 제롬 메스나제의 ‘하얀 남자’(출처 : 파리시청)

- 에르미타주가(街)에서는 옛 과자공장이 재즈와 월드뮤직 전용 콘서트홀로 리노베이션되어 있음. 사비 가가 카스카드가(街)와 만나는 지점에는 벨빌의 수도교 유적이 자리하고 있음. 과거에 가톨릭 수도회에서 물을 대기 위해서 언덕의 낙차를 이용해 건설한 수도교 자리인데, 뱅상은 근방에서 앙리 4세가 말에게 물을 먹였다는 전설을 얘기해 줌.
- 이처럼 골목 구석구석을 잘 아는 가이드 덕분에 동네 산책이 더욱 흥미로워짐. 산책 코스는 벨빌 공원까지 이어지고, 에펠탑이 보이면 관광객들은 오후 1시쯤 벨빌 지하철역 앞에서 산책을 종료함.
- 산책을 끝마칠 때쯤 관광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말함. “유명 관광지 말고 동네를 알아볼 기회가 되어 좋았어요.” “거리를 잘 아는 사람이 가이드를 하니까 골목 구석구석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등과 같은 의견을 말하는 관광객이 많음. 가이드인 뱅상 역시 “동네 산책 가이드를 맡으면서 세상에 대해 다시 마음이 열리고 호기심이 생기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라고 자신의 느낌을 말함.

http://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tourisme-dans-le-20e-dans-les-pas-d-un-sans-domicile-fixe/rub_1_actu_147399_port_24329

http://quefaire.paris.fr/fiche/81207_1_alternative_urbaine

문화·관광

파리 교외의 매력을 알리는 웹사이트를 민간합동으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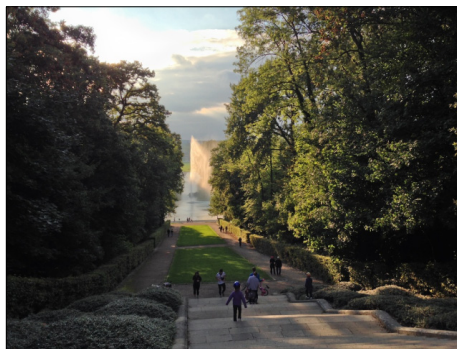
파리시 / 문화·관광

- 파리 시외에 사는 저널리스트 8명이 자발적으로 블로그 www.enlargeyourparis.fr를 만들어 파리 교외/시외의 명소 등을 소개하는 “당신의 파리를 넓히세요!”(Enlarge your Paris) 웹진을 제작해오고 있음. 일간지 ‘르몽드’, 영상문화 주간지 ‘텔레라마’, 아침 정보신문 ‘디렉트 마탱’ 등 유력 미디어에서 문화 담당 기자로 활동하는 현직 저널리스트들이 살면서 알게 된 파리시 바깥에 있는 명소와 대안적인 삶의 방식, 소비행태를 소개함으로써 파리 시민들이 파리 바깥에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있음.



“당신의 파리를 넓히세요!”(Enlarge your Paris) 사이트의 로고

- 이는 市가 교외지역에 있는 여러 소외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 사업인 ‘그랜드 파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문화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음. 또한 파리 중심지로부터 멀기만 하고 아무 볼 것도 없다는 시외 변두리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음.
- 이들 저널리스트들은 파리 바깥의 교외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발견한 멋진 장소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멋진 풀밭이라든가 교외의 음악 녹음 스튜디오, 유기농 야채 자판기 등이 그것임. 교외 역시 도심지 못지않게 많은 매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이 사이트의 가장 큰 목적임.
 - 이 사이트는 공원, 박물관, 레스토랑, 요리교실, 도시농업과 쇼핑장소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내용을 갖추고 있음. 그뿐 아니라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이용자의 현 위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행사 정보까지 알려줌. 이용자들은 마치 문화시설이 집중된 도심지처럼 잘 정리된 정보를 지역주민처럼 자세히 얻을 수 있고, 그곳에 처음 이사한 사람도 지역의 사회생활에 바로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꾸며져 있음. 여행안내소나 도시정보 사이트에서 누락하기 쉬운 교외지역의 비밀을 벗겨내 기자의 감각적인 편집으로 소개하고 있음.



사이트에서 소개된 쏘 공원(Parc de Sceaux) 모습 / 사진 © Steve Stilmann

- 올 여름 직전 이들 저널리스트는 이 콘텐츠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협력형 상위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결정함. 클라우드 펀드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한편 차량 공유 사이트나 E-티케팅 사이트와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선하고, 스마트폰 어플과 협력형 사이트를 런칭해 이용자들이 직접 교외지역의 명소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함.

-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새 사이트 구축에 5,000유로(약 672만 원), 장애인 이용 가능조건을 조사하고 표시하는 데 6,000유로(약 807만 원), 개인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행사달력을 제공하는 데 9,000유로(약 1,210만 원) 등 단계별 클라우드 펀드로 모금함. 15일 만에 3,700유로(약 497만 원)를 모금했고,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市 협동경제자금에서 지원을 받게 됨.
- 이 사이트는 또한 파리市 공영 대중교통시스템인 RATP가 지난 7월 12일 월정액 구역을 확장함에 따라 교외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市 공식 웹사이트의 문화달력에 교외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협약을 市와 맺음.
- 市 웹사이트 내에 구축된 문화행사 섹션 ‘파리에서 뭘 하지?’의 “당신의 파리를 넓히세요” 페이지에서는 지하철노선별 문화행사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모든 문화행사가 도심지에서만 열린다는 편견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예를 들어 파리 시내에 있는 유명한 공원보다 훨씬 넓고 이용자가 적은 교외의 공원을 알릴 수 있음. 이 참신한 편집의 새로운 가이드는 파리 시민들이 알려지지 않은 멋진 장소를 탐험하도록 촉진할 것임.

<http://banlieue.blog.lemonde.fr/2014/07/03/un-site-collaboratif-pour-sortir-en-banlieue-parisienne/>

<http://fr.ulule.com/enlarge-your-paris/>

사회·복지

보육시설 등을 갖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 육아 응원 아파트’ 인증제도 시행

일본 요코하마市 / 사회·복지

- 요코하마市는 면적규모, 방음시설 및 장애인시설 보유 등 일정한 주거성능을 충족하

고, 보육시설 등 지역을 위한 육아지원시설을 함께 갖춘 아파트를 ‘요코하마市 지역 육아 응원 아파트’로 인증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인증 아파트는 보육시설 등 지역을 위한 육아지원시설을 병설한 아파트와 추가적으로 육아친화적인 거주조건을 갖춘 주거 및 육아 지원시설 인증 아파트의 두 종류로 나뉨. 市는 주거시설의 육아환경 개선과 인증제도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지역 육아 응원 아파트 인증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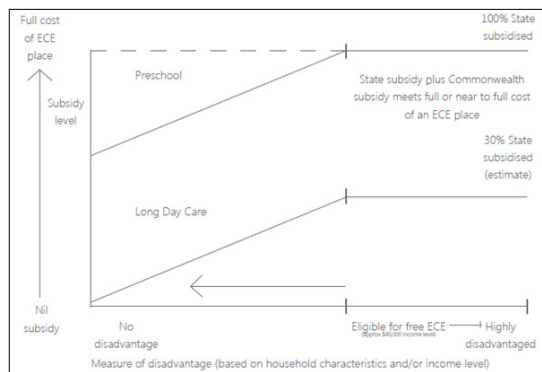
- 인증을 받게 되면 먼저 市 홈페이지에 해당 건물이 소개되고 인증 마크 활용을 통해 아파트의 판매나 임대 시 육아환경이 좋은 물건으로 홍보가 가능함. 그리고 공개 공지 정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아파트 신축계획은 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를 활용하여 보육시설 등의 일부 육아지원시설 부분의 용적률 가산 등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주택 구매자는 금융기관에서 모기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정 조건의 면적, 방음성, 장애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부가적으로 건물 구조, 배치, 건물 계획 및 설비, 방법 등의 요소가 육아환경에 적합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함. 인증을 신청하고 싶은 사업자는 市 건축국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안을 어린이청소년국에 제출해야 하고, 기본계획 및 설계안 심사가 이루어진 후 계획이 인정된 뒤 건설 공사에 착수하게 됨.

미취학 장애아동의 교육 및 발달을 위한 새로운 지원프로그램 도입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사회·복지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는 미취학 장애아동에 대한 새로운 지원프로그램(Preschool Disability Support Program)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이 프로그램은 취학을 앞둔 학령전기 장애아동의 교육 및 발달을 지원하기 목적으로 시행되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을 통해 지원이 제공됨.
- 기존에 장애아동은 ‘추가 학습욕구를 지닌 아동 지원프로그램’(Supporting Children with Additional Needs)과 ‘개입 지원프로그램’(Intervention Support Program) 등 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 왔음. 이 두 프로그램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기관의 지역과 특성에 따라 다른 체계로 운영되어 왔음. 이에 따라 두 프로그램 간의 유사성과 중복 지원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새 통합 프로그램은 단일체제로 운영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대상 기관의 재정 지원 신청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州정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 Community)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될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은 매년 1,700만 호주달러(약 17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지원 대상 기관은 미취학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preschool providers)이며, 이들은 보통 3세에서 6세 사이 취학을 앞둔 아동에게 정규교육 준비 교육을 제공함.
 - 학령전기 교육 제공 기관은 크게 프리스쿨(Preschools), 일반 보육원(Long day care), 가정 보육원(Family day care)으로 구분됨. 프리스쿨은 학령전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880개가 운영되고 있음. 이 중 약 100개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나머지는 민간 혹은 비영리 기관으로 구분됨. 지원 신청 자격은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 주어지며, 사회 및 정서 장애, 발달 지체장애, 신체장애, 언어장애 등을 겪고 있는 아동이 등록된 기관에 한해 지원이 제공됨. 일반 보육 기관들은 학령전기 교육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지원 신청 자격이 주어짐.

- 새로운 프로그램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지원방안으로 구성됨.
- 신청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 지원금 : 장애아동 수와 장애등급에 기초한 지원으로, 장애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급여가 제공됨. 즉, 낮은 수준의 장애아동의 경우 1일에 45호주달러(약 4만 원), 중간 수준의 경우 90호주달러(약 8만 원),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 120호주달러(약 11만 원)가 지원됨.
- 신청에 의하지 않은 보편 급여 : 장애아동이 등록된 모든 기관은 지원 신청 없이 등록된 모든 아동(비장애아동 포함)의 수에 기초하여 기본 지원금이 제공됨.
- 프로그램 관리 : 州 교육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관리할 운영주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임.
- 장학 지원 프로그램 : 장학금 지원은 프리스쿨 교육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이 특수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모든 교육비를 지원함. 매년 20명의 교육 제공자가 선정되며, 주로 석사과정 교육을 지원함(규정상 프리스쿨 교육 제공자는 이미 학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고급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 기관에 종사하는 교육 제공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짐.



학령전기 장애아동 지원 모델

- 재정 지원금은 장애아동의 학습욕구 충족 및 학업능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만 사용되어야 함. 즉, 추가적인 직원 고용, 직무연수비, 특수교육 조연 서비스, 교육목적에 필요한 교재 및 장비 구입,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새로운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의 비효율성과 비일관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무엇보다도 장애등급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균일 급여를 개선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급여를 제공함에 따라 아동의 욕구에 기반을 둔 급여체계를 구축함. 또한 지원 대상 아동 확대도 주목할 만한 변화임. 즉, 기존에는 경미한 장애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은 모든 장애아동을 고려함에 따라 더욱 포용적인 제도로 평가됨. 또한, 프리스쿨 노동력 계발 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프리스쿨의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전문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됨.

<https://www.nsw.gov.au/news/preschool-disability-funding>

환경·안전

중국 시안(西安)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일본 교토市 / 환경·안전

- 교토市는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인 자이카(JICA)의 ‘풀뿌리 기술 협력 사업(지역 제안형)’을 활용하여 우호 도시인 중국 시안(西安)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JICA 풀뿌리 기술 협력 사업(지역제안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살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하나임.
- 교토市는 2008년부터 3년 단위의 계획목표를 가지고 협력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08~2011년의 기술 협력 결과 시안의 대기질 측정기관 증설과 석탄보일러 배기가스 배출기준 설정계획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둠.
- 市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3개년 사업에서는 대기 중 부유 입자상 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을 실시함.

- 시안은 경제성장에 따른 공장 및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건설사업 증가의 영향으로 대기 중 부유 입자상 물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PM10의 농도를 국가 2급 기준인 연평균 $0.10\text{mg}/\text{m}^3$ 이하로 유지하고, PM2.5의 정확한 측정과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세움.
 - 법률·제도적 측면에서는 PM10과 PM2.5 등 미세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 조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계획 및 인재육성 측면에서는 장기적·종합적인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 계획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교토市の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바탕으로 계획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市는 JICA의 기술 협력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기술자 및 행정직원을 교육·연수하고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음. 예산은 3년 이내 3,000만 엔(약 3억 원) 이하임.
- 市는 그동안 시안市の 환경 분야 직원을 초청하여 교토의 환경정책, 자동차공해 감소대책에 관한 강의 등을 실시함. 또한 市 대기오염 담당 직원을 시안에 파견해 대기환경 관련 기관을 시찰하고 기술적 조언 등을 실시함.

2012~2014 사업 실시 계획

연도	내용
1차년(2012)	교토市の 대기오염 담당 직원 4명 파견
	시안의 환경 분야 간부 행정관 5명 수용
2차년(2013)	시안에서 부유 입자상 물질 감소와 직접 관련된 환경관리 기술자 5명 수용
	교토市的 대기오염 담당 직원 3명 파견
3차년(2014)	시안에서 환경정책과 마을 만들기를 담당하는 간부 행정관을 포함한 정책 담당자 등 5명 수용
	교토市 직원 파견 예정

<http://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171640.html>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도심의 포트홀(pothole)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운동 전개

영국 맨체스터市 / 환경·안전

-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는 맨체스터市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대학 내의 여러 시설을 활용한 연구·교육 프로그램인 ‘University Living Lab’을 운영 중임. 2013년 2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맨체스터 대학교의 교수진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 내 관련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 더불어 학교 내에서 진행 중인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함.
- ‘University Living Lab’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Manchester Cycling Lab’은 맨체스터 시청과 맨체스터 광역교통국 및 여러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맨체스터市를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각종 연구 활동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맨체스터 시청과 함께 2014년 6월을 ‘30일간의 자전거 혁명 기간’으로 정하고 맨체스터 전역에서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300여 개의 행사를 개최함.
- ‘포트홀(pothole) 파티’는 이러한 이벤트의 일환으로 한 달간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이용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로상의 포트홀(움푹 파인 곳) 사진을 찍어 SNS상에서 사진을 공유하고 이를 맨체스터 시청에 전달해 도로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함.
 - 포트홀이 현재 맨체스터市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로 여겨지고 있고, 영국 전역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트홀 보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이벤트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반 자전거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줌. 이 이벤트는 사진 공모전 형식으로 실시되어 우수 참가자들에게 상금이 지급되었음.



‘30일간의 자전거 혁명’ 이벤트를 홍보하는 맨체스터 시장



‘포트홀 파티’ 이벤트 홍보 포스터



‘포트홀 파티’ 이벤트 참여 사진

<http://universitylivinglab.org/>

<http://universitylivinglab.org/manchestercyclinglab/news/pothole-party-road-hazard-repor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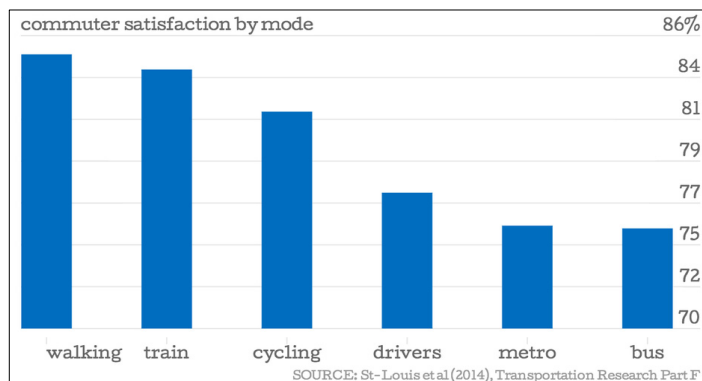
<http://www.manchestereveningnews.co.uk/news/greater-manchester-news/bike-month-manchester-bike-tastic-month-7305824>

도시교통

어떤 교통수단이 통근자에게 가장 큰 행복감을 줄까?

캐나다 몬트리올시 / 도시교통

- 캐나다 몬트리올의 McGill 대학교는 최근 연구를 통해 어떤 통근방식이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지 6개의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통근기차, 도보, 자전거, 승용차)을 분석하였음. 연구진은 약 3,400명의 대학교 통근자를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근수단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수단별 만족감 지표로 변환함.
- 분석 결과 도보의 경우 85%, 통근기차 이용자의 경우 84%,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82%, 승용차의 경우 77%, 지하철 이용자의 경우 76%, 버스 이용자의 경우 75.5%가 만족감을 표시함.



- 교통정체나 혼잡한 대중교통을 경험하는 통근자에 비해 그렇지 않은 통근자가 좀 더 높은 만족감을 보임. 따라서 도보, 자전거, 통근기차 이용자들이 버스와 지하철 이용자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나타냄. 하지만 어떤 통근수단도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음. 즉 도보 및 자전거의 경우 추운 겨울에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통근기차의 경우 통행 자체가 비생산적이 된다면 이 역시 만족도가 떨어짐.
- 이런 기본적인 사실 이외에도 통근시간이 길어지면 어떠한 교통수단이든 간에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자전거와 도보, 통근기차 이용자의 경우 그 정도가 타 교통수단보다

적음. 이는 자전거와 도보가 통근 그 자체를 즐기기에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임. 또한 통근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교통상황 때문에 예상된 통행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진이 439명의 자전거 이용자와 516명의 버스 이용자의 직접 비교를 통해 만족도에 대한 시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와 버스 이용에 평균 22분이 소요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버스 이용자에 비해 훨씬 높은 만족감을 나타냄.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추가 지체 예상시간을 5분으로 예상하는 것에 비해 버스 이용자의 경우 추가 지체 예상시간을 약 14분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즉, 버스 이용자의 경우 1주일에 1시간 이상의 여유시간을 직장에 늦지 않기 위해 투자하는 것임.
- 또한 대중교통 운행 빈도와 같은 외적 요인은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설명하지 못함. 통근자들은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좀 더 큰 만족감을 드러냄. 즉, 통근자가 승용차 이용을 원했는데 버스와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이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연구진은 현재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만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림.
- 하지만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행하였고,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소홀히 다뤄진 면이 있음.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http://www.citylab.com/commute/2014/08/which-mode-of-travel-provides-the-happiest-commute/378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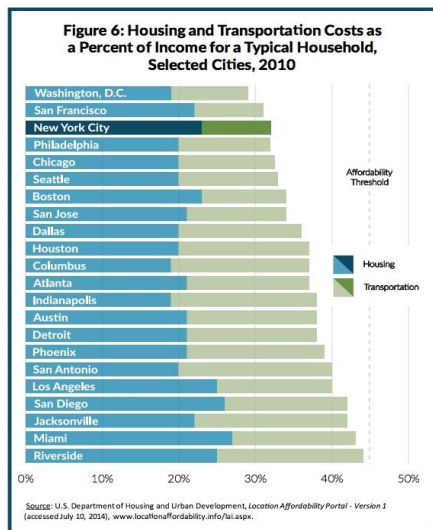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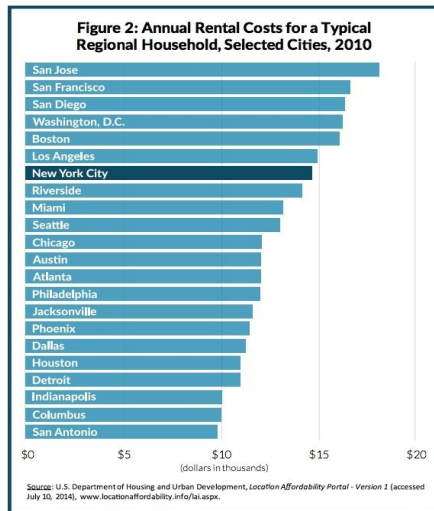
좋은 대중교통시스템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

미국 /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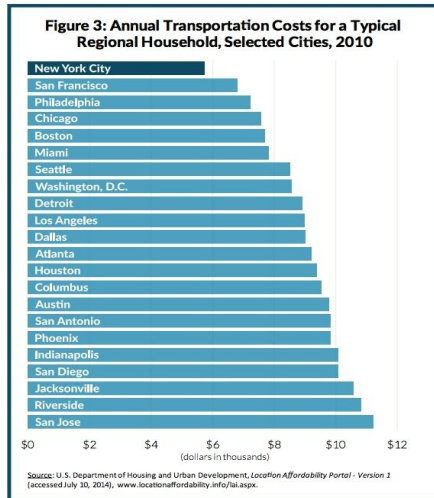
- 어떤 도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정하는 데는 제일 먼저 주택비용을 고려함. 주택비용이 비쌀수록 도시 생활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그런데 주택가격 외에 대

중교통비용이 도시 생활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일반적으로 교통비와 주택비용을 합산한 값이 개인 소득의 45% 이상이 되면 그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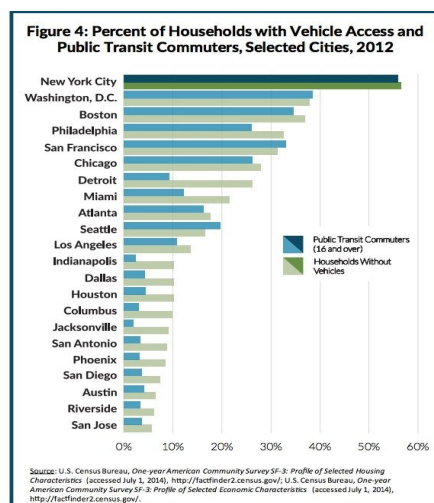
- Citizens Budget Commission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22개 주요 도시의 연간 평균 주택비용을 발표함. 아래 차트에서 보면 가장 위에 있는 도시가 살기 어렵고 가장 아래에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을 것 같지만, 다음 차트를 보면 그 결과는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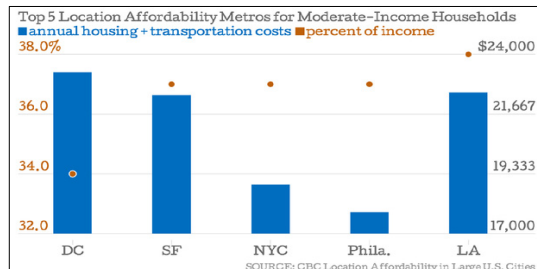
- 위 차트에 따르면 주택비용이 높은 많은 도시(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보스턴, 산호세)가 또한 살기 좋은 도시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호세의 경우 높은 주택비용만큼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래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비용 때문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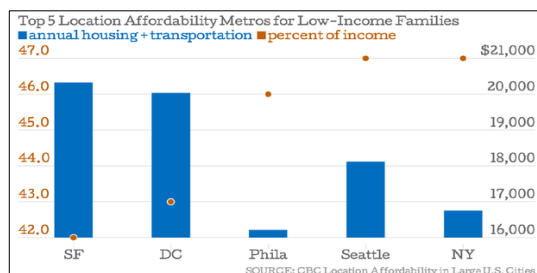
-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보스턴의 경우 확실히 좋은 대중교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들 도시는 상대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이 적을 수밖에 없음. 또한 이들 도시는 높은 대중교통 출퇴근 비율 및 낮은 승용차 보유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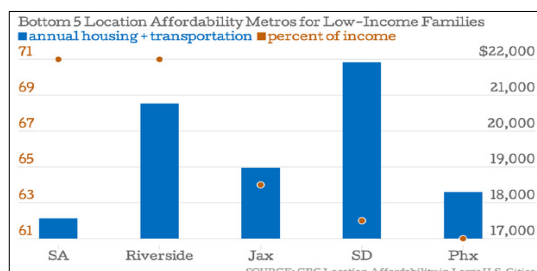
- 좀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결과를 주택종류별로 구분하면 중산층의 경우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뉴욕,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임. 이 중 교통비용이 적은 3개의 도시(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가 포함되어 있음.



-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시애틀, 뉴욕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됨. 즉, 교통비용이 낮은 도시가 주택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됨.



-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 중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로는 샌안토니오, 리버사이드, 잭슨빌, 샌디에이고, 피닉스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모두가 자동차 의존 도시로 대중교통 이용 비율과 자가용 없는 가정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샌안토니오의 경우 낮은 주택비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통비용이 살기 어려운 도시로 만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비용이 실제로 도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고, 좋은 대중교통시스템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http://www.citylab.com/commute/2014/08/7-charts-that-show-how-good-mass-transit-can-make-a-city-more-affordable/379084/>

도시계획·주택

‘안전하고 깨끗하며 활력 있는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 도시계획·주택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산업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도시로 알려져 있고, 도시정부에서도 그동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시 이미지를 홍보해왔음. 또한 2007년 법적으로 도시 내 산업과 사업체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이 있어 성산업이 주를 이루는 ‘Red light district’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져왔음.
- 이에 市정부는 ‘1012 프로젝트’를 통해 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 특히 성인물 관련 산업을 대폭 규제하고, ② 암스테르담만의 분위기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소규모 상점을 육성하며, ③ 기존의 상점이나 사업장을 활용하여 ‘Red light district’의 특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면서도 이 지역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계획임.
 - 1012 프로젝트 대상 지역에는 더욱 고급스러운 상점이 입점하도록 하고, 주요 호텔의 리노베이션도 장려함. 특히 기존 호텔을 대상으로 ‘아트호텔’이나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소규모 전시관이나 상점을 육성하고, 보행로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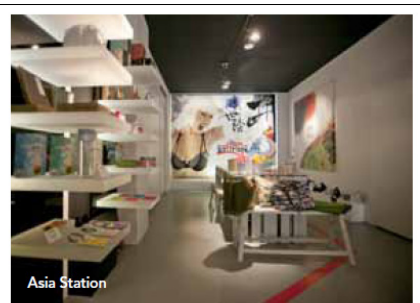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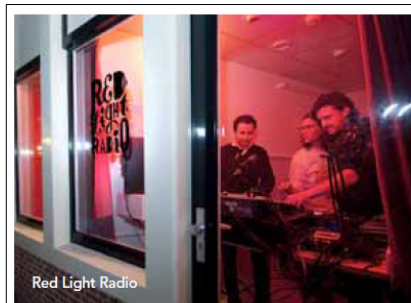
- 사업 진행은 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① 공간적 접근 : 보행자를 위한 공공공간의 물리적 개선 시행, ② 행정적 접근 : 행정에서의 부정부패 예방, ③ 범죄예방 차원의 접근 : 범죄의 근간이 되는 마약이나 성산업의 직접적인 노출 규제, ④ 법적 강화 : 시각적으로 유해한 환경이나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감시, ⑤ 성산업에 대한 보건관리 강화와 같은 사항을 추진함.
- 이를 위해 사업 대상 지역에 전면창을 두었던 사업장에는 보행자가 직접적으로 안을 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업장(전시관, 라디오 스테이션 등)은 개방형으로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함.



1012 프로젝트 적용구역



예술가들과 협력한 보행환경 시뮬레이션



전면창이 허용되는 전시관과 라디오 스테이션

- 이번 사업은 기존의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으로의 이미지 쇄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 조성에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http://www.amsterdam.nl/gemeente/organisatie-diensten/sites/project_1012/1012/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새로운 도심형 에너지효율 아파트 건설 추진

독일 프랑크푸르트市 / 도시계획·주택

- 프랑크푸르트市 주택공사는 새로운 개념의 도심형 에너지효율 아파트 건설에 착수함. 이 아파트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에너지를 소비한 후 최소 10%가 남을 수 있도록 설계됨. 市는 이 아파트가 플러스 에너지 콘셉트를 지향하는 도시형 아파트의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지는 곳은 마인강변에 위치한 Gutleutviertel 지구임. 길이 160미터, 폭 9미터의 길고 좁은 부지에 74세대 규모의 8층 건물이 세워짐. 이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연간 총에너지소비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물로, 독일연방 교통 건설도시발전부의 에너지 효율 플러스 주택기준을 충족함.
 - 일명 액티브-시티하우스(Aktiv-Stadthaus)로 불리는 이 아파트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에너지 절약 주택’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액티브 에너지 주택’을 조합한 형태임. 그동안 몇몇 액티브 에너지 주택이 건설되었지만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이었음. 그에 비해 이번에 착공된 주택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액티브-시티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임.
 - 아파트 건물 지붕에는 고효율의 태양광모듈 1,000개가 설치되고, 건물 남쪽 파사드에는 330개의 얇은 PV모듈이 설치됨. 이는 에너지효율 주택의 건물 벽을 지붕과 똑같은 태양광모듈로 둘러싸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얇은 PV모듈을 외벽 마감재처럼 시공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임.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는 난방용 히터, 목욕탕, 엘리베이터에 사용됨. 또한 가까운 하수도에서 생활하수

의 온도차 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하수열에너지는 난방과 온수로 사용됨.

- 아파트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 A+++ 등급으로 국한됨. 또한 각 세대마다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설치함으로써 자신의 집이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했고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지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도록 함.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아파트 내의 배터리에 저장되어 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1층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도 저장되어 아파트에 비치된 카셰어링용 전기자동차와 전기자전거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액티브-시티하우스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자체 생산을 통해 주택과 교통의 2가지 중요한 환경 테마에 기여함. 市는 이 아파트가 2020년까지 맞추어야 하는 유럽연합의 환경보호 기준(에너지 20% 절감, 배기가스 20% 저감, 에너지 총소비량의 2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연방정부의 전기자동차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주택모델로 평가함.
- 이 아파트는 지속가능한 건축 지원 프로젝트의 틀에서 건설계획 초기부터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슈투트가르트市의 솔라테크닉 연구소, 다름슈타트 공과대학 연구소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음.
- 액티브-시티하우스는 2015년 5월 완공 예정임.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월 13유로(약 1만 7,000원)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프랑크푸르트市에서 저렴한 편에 속함. 최신 설비의 신축아파트면서 도심에 위치하고, 계속 오르는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따로 사지 않고도 아파트 내 전기자동차를 카셰어링할 수 있어 도시인들에게 꿈의 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됨. 연방정부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해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 건물 등 공공건축에 적용해 나갈 계획임.



프랑크푸르트市的 액티브-시티하우스 완공 예상도

<http://www.welt.de/regionales/frankfurt/article130653276/Wohnen-im-Plus.html>

<http://www.detail.de/architektur/news/aktiv-stadthaus-plus-energie-im-grossen-massstab-023483.html>

[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2855&_ffmpar\[_id_inhalt\]=18780283](http://www.frankfurt.de/sixcms/detail.php?id=2855&_ffmpar[_id_inhalt]=18780283)

‘이웃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둔 임대주택 사업 추진

독일 뮌헨市 / 도시계획·주택

- 뮌헨市 주택정책의 주요 목표는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여 중산층과 서민이 뮌헨에서의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市 주택건설조합인 GWG와 GEWOFAG은 임대료를 평방미터당 7유로(약 9,400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
- GEWOFAG은 3만 5,000여 호, GWG는 2만 7,000여 호의 임대주택을 市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임대주택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또한 신규주택 건설계획도 추진 중임.
 - GEWOFAG은 이미 지난해 약 750호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했으며, 이 사업들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 GWG 역시 지난해 235호의 신규 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했으며, 이는 2015년 초에 완료될 계획임.
 - 市 산하 주택건설조합의 이러한 신규 건설 프로그램은 향후에도 계속될 예정임. GEWOFAG은 향후 5년 동안 약 4,000호의 신규 주택을 건립하는 데 약 11억 5,000만 유로(약 1조 5,394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GWG 역시 2018년 말까지 1,9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임.
- 市 산하 주택건설조합은 市 주거 및 사회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특히 신규 건설 및 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혁신 주거 건설에 빼어난 능력을 보여 주고 있음.
 - 예컨대 GEWOFAG은 Laim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된 패시브 하우스(기밀성과 단열성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

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한 에너지효율형 주택 역시 공급하고 있음.

- 市の 임대주택 사업에서는 이웃 공동체의 형성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조합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합은 9~10명의 임차인을 묶어 추천하고 있음. 따라서 임차인들은 적절한 가격과 고품질을 갖춘 주거공간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도 접할 수 있게 됨.
 - 이를 위해 GEWOFAG은 자회사 Wohnforum을 통해 독자적인 공동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자회사는 13개의 ‘이웃 만남 공동체’를 운영하며, 노년층에서 육체노동자 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웃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조함. 또한 ‘4분의 1 주거’(Wohnen im Viertel)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거에서의 응급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립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함.
 - GWG는 포괄적인 임차인 보호와 전체 주거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노년층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WG plu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노약자 계층에 대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주택 수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임.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infos/Die-Stadt-informiert/sept_wohnungsbau.html